A Korean War Diary (역사앞에서) by Kim Sungchil

Translated into English by his son, Kibong Kim, 2021

- 이책이 무슨 책인가?
  - 이 책은 제 아버님의 한국전 때의 일기입니다. 1993에 발간된 원저, '역사앞에서'는 오랫 동안 베스트 셀러였고, 개정판 (2018), 자세한 주해를 붙인 정병준씨의 주석판(2009)과 KBS 영화 (1994)가 있습니다.
  - 한국전쟁 자체에 대한 책은 많지만, 전쟁이 불러온 국민들의 고난과 그들의 감정을 개인적인 입장에서 기록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 사학자가 이 거대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이 책은
    - 전쟁중의 사건들, 인민군, 북한 정부의 행동들을 저자가 본 대로 기록
    - 개인적인 고난, 그리고 국가적인 고난을 기록
    - 일기인 만큼 토픽들이 산발적이지만 이 토픽들을 연결하는 큰 두가지 끈이 있습니다
      - 첫째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역사적 사건의 흐름이 있고,
      - 둘째는, 중립을 지키면서, 절망하지 않는 따뜻한 저자의 마음
    - 이 두 끈들을 중심으로, 제가 깊게 느꼈던 점들을 간략하게 예를 드는 형식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 아버지, 저자 김성칠 소개
  - 1913, 출생
  - 1928, 15세, 좌익사상을 가지고, 일본 통치 아래에서, 대구고보 동맹휴학을 이끌었음, 학교에서 퇴출되었고,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1년간 복역, 그래서 늦어진 교육 과정
  - 1946, 33세, 경성 제국대학교 법문학부 사학과 졸업, 사학과 조수 취직, 1947-51, 국립서울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4년간의 교수, 학자생활, 1951, 38세, 사망
  - 분야: 한국사 및 동양사. 다른 학문적인 취미: 한국어 어원연구. 9권의 저서 (1946 대학생 때 출간된 '조선역사', 등), 5권의 번역서 (중국어- 용비어천가등, 일본어, 영어-펄 벅의 '대지' 등), 28편의 신문기고 (대학교 가기전, 주로 조선 농촌 문제들에 대하여 공부)
  - 어떠한 분?: 정열적인 학자, a people person (인본주의자이며 사람들에 대해 극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 중립주의자 (좌익 사상에서 일찍 떠나셨음), 유교정신에 젖은 분, 한국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으셨던 분
  - 한 제자 왈: '사람답게 사셨던 분'

- 일기를 쓰는 것에 대한 그의 태도
  - 1946.4.22 (영문 번역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신문기사가, 어떤 사실을 묵살하거나, 또는 그와 반대로 강조해서 표현하여 독자의 판단을 어긋나게 하는 것은, 허위 보도와 다를 것이 없다. 나는 일기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오늘,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 다투었는데, 내가 지금 흥분한 상태이어서, 그 일에 대하여는 일기를 쓰지 않겠다."

- 한국전 요약
  - 1950. 6. 25: 북한군 남침
  - 6.27: 미국을 포함한 16 Un 국가들 참전
  - 6.28: 서울 함락
  - 1950. 9: 한국군, UN군 낙동강 까지 후퇴
  - UN군 인천 상륙 □ 9.28: 서울 탈환
  - UN군 압록강지역까지 북진
  - 10.19: 중공군 전쟁에 개입.
  - 3년에 걸친 전쟁, 서울을 네번 뺏고 빼앗김, 기나 긴 소모전
  - 1953. 7. 27 휴전
  - 300만명 이상 사망, 국토의 완전 파괴

- 오늘 말씀드릴 제목들
  - 1950.6-9
    - 서울 시민들의 고난, 저자 개인의 고난
    - 공산주의에 대한 저자의 관찰 및 의견
  - 1950.10 – 1951.4
    - 서울 수복후의 혼란
    - 혹한 속의 피난
    - 부산에서의 피난 생활
  - 어려운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저자의 민족에 대한 사랑, 믿음과 희망

- 일반 시민과 개인의 고통과 고난
  - 동족지간의 싸움, 형제 지간의 싸움
  - 물리적
    - 전쟁으로 인한 상존하는 위험
    - 모진 굶주림
  - 정신적
    - 상존하는 임의적인 처벌의 가능성
    - 절친했던 (좌익) 친구들의 떠남

- 동족지간, 형제지간의 싸움
  - 동족지간의 싸움
    - 해방전에는 원래 남북이 없었다. 한 나라였다.
    - 해방 후 남북이 이념으로 갈라졌다.
    - 그랬는데, 전쟁이 터지자, 그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다.
  - 형제지간의 싸움
    - 10. 5 일기: 서울 수복 1 주후, 저자의 집에, 북진하면서 하루 묵었던 한 국군 병사 이야기: "전선에서 양군이 서로 어울려 육박전에 들어가 칼로 적을 찌르려 할 때 문득 얼굴을 치어다 보니 그 것이 바로 틀림없는 내 둘째형이 아닌가. '형님!'하고 칼을 내동댕이치는 순간 엉엉 울었다."

- 전쟁으로 인한 상존하는 물리적인 위험
  - 6.27: 미아리 고개에서 전차포를 쏘는 적군과 마주 보고 있는 낙산 국군 포병대 사이에 끼인 가족, 바로 머리위로 나르는 포탄들.
  - 8-9월: 그다지 정확하지 못한 미군 공습 폭탄 투하, 집 바로 옆의 경신 중학교가 인민군 부대 주둔지.
  - 9.28: "총알 하나가 벽을 뚫고 들어와 옆에 있는 잉크병을 깨뜨렸다."

- 굶주림
  - 식량 수탈: 7.11 "인민군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집집마다 식량을 조사하고, 이를 뒤져내어서 마을의 굶는 사람들에게도 나눠 주고 자기네도 먹었다. 그 때의 약속은 일주일 내 식량의 반환. ….. 2 주일이 지난 오늘까지 기다리던 식량배급이 없고 이제는 이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다. ….. 벌써 밖의 여인네들의 얼굴이 부석부석해 보인다. 지금은 여름이라 푸성귀라도 있지만, 그 후에는 어찌 하나?…"
  - 기근: 9.6 "이즈음은 미국 비행기가 (지상) 고사포의 위험도 없이 밤낮으로 서울의 하늘을 찾아오니 등화 관제가 엄격할 밖에. 조금이라도 불빛이 새면 마을전체가 야단이고, 인민군이 달려와서 총으로 쏜다고 위협이다. 그러나 이 동네 유씨댁은 일부러 불을 밝게 켜놓고 누가 와서 무어란대도 불을 끄지 않는다. '총을 쏘라우. 이대로 창자가 곯아 비틀어져 죽는 괴로움 보다는 총을 맞아 죽는 것이 낫지. 폭탄이 떨어져서 한꺼번에 다 죽으면 더더욱 시원하겠지.'"

- 상존하는 임의적인 처벌의 가능성
  - 미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유없이도 아무나 고발할 수있고, 체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를 옳게 밝힐 여유가 없으며, 특히나 고발한 사람과 고발을 접수한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라면…..

- 7.5: 인민재판, "사람들을 모아 놓은 장소에 청년 몇 사람을 끌어다 놓고, 따발총을 멘 인민군들이, 군중을 향하여, '이 사람이 반동분자요, 아니요?' 하고 물으매, 모두들 기가 질려서 아무말이 없는데, 그 중에 한 두 사람이 – 나중에 생각해 보니, 아마도 그들을 적발한 사람들인듯 – '악질 반동분자요' 하고 소리 치니, 두말없이 현장에서 쏘아 죽이는데 그 피를 뿜고… 그 죽은 청년들이 어떤 반동 행위를 했는지 군중은 알지 못한 채.."
- 9.16: " 이미 (교원 심사를 통하여, 좌익사상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떨려 났으니 누가 나를 이제 반동분자라고 레떼르를 붙이면, 붙여 질 수 있는 신분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 친했던 죽마고우들과의 결별
  - 세 좌익 절친들 (홍승기, 이철, 강경석)이 공산주의 사회안에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헤어짐
  - 이철: 전쟁전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 서로 욕질을 해가면서 격렬한 토론을 자유로이 일삼았었던 죽마고우. 이철이 6.25 이후에 인민위원회 문화 선전부에서 일할 때, 긴히 물어 볼 일이 있어 찾았는데, 바로 앞에 등을 대고 앉아 있으면서 사람을 시켜서 없다고 하라고 함. 대화가 끊어짐. 9.28 때 아무 말도 않고 북으로 떠남.

- 공산주의에 대한 저자의 관찰, 의견
  - 강압적, 일방적인 정치 및 행정
    - 졸속적인 토지 개혁, 노동 법령, 무리한 집단 계획 경제
  - 억지 의용군모집, 고등학생, 대학생, 어른들
  - 1-2 개월내에 바뀌진 극단적인 반 공산주의 민심
- 졸속적인 토지 개혁과 노동법령
  - 8.27: 토지개혁
    - 임의적으로 지주들에게서 땅을 뺏어서 땅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 "공산 주의 이념에 맞는 일이고, 급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방금 (미군 비행기) 포탄이 날아 들고 있는 땅에서 어느 경황에 올바른 개혁이 될 수 있겠는가? 땅을 미끼로 소위 '자원병'을 얻으려는 것인가? 중국에서는 이런 방법이 통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조선에서는 다르다. 날마다 찾아 오는 미군 비행기를 보고, 많은 땅 받은 사람들이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 8.27: 노동 법령
    - 8 시간 노동제, 성별, 연령별, 국적별을 초월한 임금제, 노동 보험제, 임산부 보호제 등

        - “다 좋지만, 이 전란의 속에서 국영과 군수 이외에 무슨 공장이 움직이고 있는가? 거기서도 8시간 노동제를 준행하려 하는가? 이 조항이 골자중의 골자인 것 같은데, 눈감고 아웅할 수작을 왜 이토록 서두르는 것인지?”
- 무리한 집단 계획 경제
    - 1950. 8.26: 오늘 무 배추 파종명령서가 내렸다.
    - 내가, “무 배추는 이미 파종의 시기가 지났고, 벌써 달포씩이나 가물어서 먼지가 풀풀나는데 씨를 뿌려 봐야 타 죽을 것이요. 또, 우리 밭은 냇가 모래 땅이기에 가물을 심히 타서 무 배추를 조금씩 심어 봤지만, 번번히 다 타 죽었어요. 금년에는 그래서 호박을 심었는데, 끼니가 부족한 이 때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했더니,
    - “댁의 사정은 댁의 사정이고, 나라일은 그렇게 맘대로 되는게 아닙니다. 다 상부에서 일정한 계획이 있어서.. 지시가 있고… 이 지시에 따라 공평하게 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 것을 따라야, 국가 기관과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김장을 담글 수가 있는 것입니다.”
    - 며칠 후, 동네 부인들이 동원되어 밭을 갈아 엎었다. 그들은 호박 덩쿨이라도 가져가 먹으려고 기쁘게 일했다.

- 억지 학생 의용군 모집
    - 7.12: “ 어찌된 일인가 하면… ‘학교에 안 나오는 학생은 반동으로 처단한다.’ ….학생들이 모이면 곧 궐기대회로 들어 간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미제국주의와 그들의 주구인 이승만 매국도당을 쳐부셔야 한다…. 이 성스러운 대열에서 낙오하려는 자는 적어도 우리 학교에서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자는 민족의 이름아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면, 몇 극렬 분자들이 ‘옳소, 옳소!’… 장내가 흥분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간다.
    - “그다음에, 사회자가 ‘그럼 우리는 전원 의용군으로 지원합시다!‘… ‘전원 찬성인 것 같은데 반대의견이 있는 동무는 말해 주시오’ ….우락 부락한 친구들이 ‘반대가 있으면 어디 말해 봐‘…..30초, 일 분 후에 ‘ 그럼 전원 찬성이요’. 곧 서명이 끝나고, 시가 행진을 하고, 신체 검사장으로 향한다. 어떤 여학교에선 궐기대회 후에 학생들이 서로 붙안고 통곡하였다 한다. 그러나 그건 너무 감격해서 울었다는 것이다.”

- 수복 후의 혼란, 남하인들의 부패
    - ‘<u>남하인</u>’들: 1950. 10. 16: “6월에 인민군이 내려 왔을 때, 정부가 서울 시민들에게 ‘직장을 사수하라’ 해놓고 자기네들만 은밀히 남쪽으로 도망하였으면서, 이제 와서는 ‘자기들은 (남하인들은) 애국자이고 남아있던 너희들은 모두가 불순분자이다’라고 처벌을 한다.”
    - 1950. 10. 24: “앞으로 우리나라의 잘되고 못됨이 이 번에 어느정도 사람을 포섭하느냐 배제하느냐에 달렸을 것일세. 진짜 빨갱이야 철저히 적발하여

엄중 처단해야 하지만, 그들은 다 이미 도망갔지. 인공국 시대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부득이 협력하는체 했던 사람들까지 샅샅이 뒤져 낸다면 나라의 장래가 어찌될 것인가?"

- 1950. 11. 9: " 우리 마을 구장 성윤길씨가 붙들려 들어 갔다. 그가 매우 유능하고 성실한 인물인 줄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가 '부역자'로 체포되었다 한다… 얼토당토않은 죄목이다. 아마 누가 구장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 중공군의 개입과 혹한 속의 피난
  - 1950. 12. 19: "어떤 젊은 부인은 아기를 업고 죽을 힘을 다해 기차 지붕마루로 오르긴 하였으나, 워낙 손이 꽁꽁 얼어서 마음대로 아기를 잘 추스르지도 못하였는데 얼마를 가다 아기를 내려보니 이미 싸느랗게 숨죽어 있었으므로 이 가엾은 젊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곧 미쳐버렸다."
  - 1950. 12. 23: "부산에 닿았다. 손발은 꽁꽁 얼고 얼굴은 때투성이가 되어 피란 보퉁이를 안고 부산 바닥에 내렸으나 당장 오늘 하룻밤을 드샐 곳이 없다."

- 이웃에 대한 정있는 마음
  - 7.20: 극 좌익 친구 이철에게는 극 우익 형님 이인 (남한의 검찰총장)씨가 있었다. 이철의 중매를 하는데, 극도로 반대하는 이인씨의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여태껏 부모형제로서 달래보아도 안되고, 친구로서 일깨워 주어도 어찌할 수 없는 철의 사상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면 우리는 이로써 우리의 할 일을 다했다 하고 아주 철을 단념하고 말아도 좋을 것입니까? 그러나 단념하여지지 않는 것이 혈연이요 우정입니다. 우리는 남은 한가지 방법(결혼)을 마저 써 보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 이는 철을 우격다짐으로 꺾는 것이 아니고 이 때까지 가리워져 있던 철의 본바탕을 나타내게만 할 수 있으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인씨는 끄응하고 말이 없었다.'"
  - 11.22: 서울대 철학과 교수 박종홍씨 댁 이야기, "박선생님의 아드님들이 (15살 우창, 12살 규창) 거리에서 담배장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한종일 마음이 어두웠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어찌 기필하리까'하고 아내도 한숨짓는다"
- 고난속에서도 희망의 마음
  - 1950. 12. 30: "우리 겨레의 생명력은 강인한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고구려가 망한 이후 발해로 진출….몽고에 밀렸을 때 만주 심양까지 올라갔던 일… 이조 말년의 북간도 진출등… 우리 겨레의 앞날에 어떠한 고난이라도 오려거든 와 보아라. 우리의 그러한 생명력으로 이를 뚫고 나가려니, 뚫고 나가려니."
  - 1951. 3. 11: 부산 피난시 강의, "우리 민족은 현재 세계에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고, 가지 가지의 열등성을 가지고 있지만, 탁월한 잠재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체력과 또 지구력에 있어서 뛰어남은, 마라톤의 연속적 제패가 무엇보다도 단적으로 이를 증명하여 주는 바이고, 지력, 특히 그 독창력의 우수함은 한글제작으로 하여 가장 잘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가열하고 절망적인 것이라도 결코 민족적 자신을 잃어서는 아니된다. 우리는 현재가 아무리 괴롭더라도 미래에 무한한 희망을 붙일 수 있다."

- 1951. 4. 8 (일기 마지막 날): "피란꾼이 고달픈 살림살이 속에서 봄을 맞이하였다. 아내와 더불어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힘써 아이들에 관한 책을 읽고 번역하고 그러는 중에 우리도 붓을 들어서 적어도 아미치스의 '사랑의 학교' 에 비길 만한 책 하나는 후세에 남겨두자고."

- 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고달픈 피난 생활에 글을 쓰실 힘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년후에 피살되십니다.

- 이 책에 대해서 역자가 바라는 것
  - 과장없이 있는 대로, 본 그대로 쓰여진 이 일기속의 한국, 한국인, 한국문화에 대한 것들을 우리 자손들과 미국인들에게 알리고 싶다

- Locating the book
  - Google search: 'AMAZON books' □ 'A Korean War Diary'
  - Book Website: https://www.koreanwardiary.com.

- An offer to friends
  - Any NAKS member who wants to read the book, please send an email to:
    kkim.aer@gmail.com
    A Kindle (e-book) copy will be sent to that email.
    The number of available copies is limited.